

# 뱀의 허물벗기에 대한 상징 연구

나주희\*, 김동태\*\*

한일장신대학교 미술치료학 박사수료\*, 한일장신대학교 겸임교수\*\*

## A Study on the Symbols of the Snake's Shedding

Ju-Hee Na\*, Dong-Tae Kim\*\*

Senior Researcher, Ph.D. Candidate, Hanil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Hanil University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요약** 뱀은 다양한 나라의 종교, 민담, 설화 등에 등장하는 대상으로, 고대부터 인간정신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본 연구에서는 뱀의 생태 중 허물을 벗는 점에 집중하여 이와 관련한 상징을 다루었다. 뱀은 허물을 벗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딛고 성장하며, 죽음을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이는 고난을 극복하여 심리적 변환의 과정을 통한 개성화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허물벗기는 신화, 종교, 민담에서 지혜, 변환, 재탄생과 치유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사람들의 무의식에 자리하게 되었다.

**주제어** 뱀, 허물벗기, 상징, 지혜, 변환, 재탄생, 치유

**Abstract** Snakes are objects that appear in religions, folktales, and folktales of various countries, and have had a great influence on human spirit and culture since ancient times.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shedding of skin in the ecology of snakes and dealt with related symbols. In the process of shedding its skin, the snake overcomes difficulties and pains, grows, and escapes death to gain a new life. This has the meaning of individuation through the process of psychological transformation by overcoming hardships. This shedding of skin was recognized as a symbol of wisdom, transformation, rebirth, and healing in myths, religions, and folktales, and settled in people's unconscious.

**Key Words** Snake, Shedding, Symbol, Wisdom, Transformation, Rebirth, Healing

Received 11 Jan 2023, Revised 18 Jan 2023  
Accepted 25 Jan 2023  
Corresponding Author: Dong-Tae Kim  
(Hanil University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Email: dongtae1@hanmail.net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인간은 스스로 전체로서 살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마음의 심층인 무의식에는 항상 전체가 되도록 추구하는 원동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이부영, 2017)[6]. Jung(2016)은 자기 자신의 전체가 되려면 무의식과 의식의 합일이 이루어져 창조적인 인격의 변환을 초래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진정한 개성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개성화 과정’이라고 했다[14]. ‘개성화 과정’이라 불리는 이 부분에서, 상징에 대한 해석은 중요한 실제적 역할을 한다. 상징은 마음속에 있는 대극을 화해시키고 재통합을 시키려는 자연스러운 시도이기 때문이다(Jung, 2016)[14]. 상징은 인간성의 모든 면을 투사하는 정신의 표상이며, 인류가 획득하고 저장한 지혜의 표현 뿐 만 아니라, 개인 미래의 발달수준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과 미래의 정신적 변혁 여부를 알게 해 준다(Hall & Nordby, 2004)[18].

상징에서 동물의 주제는 인간의 본능적이고 원시적인 성질을 나타낸다. 많은 신화가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동물과 관련을 가지며, 실제로 모든 종족의 예술과 종교에서 신이 동물로 표현되는 등 동물적 속성은 최고의 신에게 돌려졌다. 그리스의 신화는 동물의 상징으로 가득 차 있고, 기독교에서도 동물 상징은 놀라울 정도로 커다란 역할을 했다(Jung, 2016)[14]. 동물 그림이 있는 동굴의 기원은 빙하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니 동물이 인간의 무의식에 지대하게 자리 잡아 왔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Jung, 2016)[14]. 이렇게 무의식 속에 있는 동물은 인간의 정신 영역의 상징이다(Jung, 2002)[17]. 특히 상징적 동물 중 뱀은 다양한 나라의 종교, 민담, 설화 등에 등장하는 대상으로, 고대부터 인간정신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뱀은 과거부터 인간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왔고, 다양한 종교, 민담, 설화에서는 지혜, 치유, 교활, 부활, 풍요, 기타 다양한 상징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어느 민족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집단적이며 객체적임을 증명하는 것이다(Jung, 2007)[16].

뱀은 고대 이전부터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여 인간과 밀접하게 살고 있기에 인간들은 가까운 곳에서 뱀의 생태를 지켜보았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뱀의 상징도 다양화 되어 무의식에 자리하였다. 이러한 뱀의 상징을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오랜 역사동안 무의식 차원

에 머물던 상징을 의식차원으로 끌어올리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개성화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뱀의 다양한 생태학적 특징 중 허물벗기의 상징적 의미를 찾고자 한다. 상징의 특성에 대한 과학적 확인은 비교신화학적·민속학적·종교적 및 언어사적 연구로 가능하다(Jung, 2007)[16]. 상징술이 민속학, 신화, 전설, 고사성어, 격언, 인구에 회자되는 농담에서 온전하게 발견되기 때문이다(Freud, 2017)[24]. 그러므로 본 연구 뱀의 허물벗기의 상징적 의미를 종교, 민담, 신화 등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뱀의 허물벗기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

뱀의 피부인 비늘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허물을 벗는 방식으로 몸 전체의 모든 세포를 주기에 맞춰 동시에 교체하여 새로운 피부를 얻는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은 뱀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반복된다는 것이다(이태원, 2013)[9].

뱀의 허물벗기는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성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 뱀의 몸을 둘러싼 비늘은 몸 전체가 한 장의 비늘로 덮여 있어 하나하나씩 떨어지는 구조가 아니고, 비늘은 더 이상 자라지 않기에 뱀이 성장함에 따라 몸 전체의 허물을 벗는 것을 통해 비늘을 벗는다. 뱀은 이러한 허물벗기를 통해 성장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다.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다면 허물은 딱딱하게 굳어 스스로의 몸 안에 갇혀 죽게 된다(이태원, 2013)[9].

몸 전체를 둘러싼 비늘을 벗어야 하는 과정은 상당한 고통이 따르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또한 상당한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과정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뱀은 허물을 벗기 시작하면서 거식을 하게 되고, 눈이 뿌옇게 변화해 잘 보이지 않는 ‘블루현상’을 경험한다. 이 시기에는 피부도 상당히 약해지고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위협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힘들다(이태원, 2013)[9]. 그래서 허물을 벗는 과정은 뱀의 성장을 위해 겪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인고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뱀의 허물 벗는 과정은 인간의 개성화 과정으로 빗대어 질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이 태어난 본래의 모습인 완전한 인간으로 되어가는 일생 동안의 과정이기 때문이다(Johnson, 2021)[22].

## 2.2 뱀의 허물벗기와 지혜의 상징

연금술에서는 죽음으로 ‘현자의 아이’인 ‘현자의 돌’이 탄생한다고 보았다. 부패와 변성의 과정을 거치며 육체는 죽고 연합된 영과 혼이 신체로부터 분리된다. 영혼은 물질세계에서 빠져나와 ‘정신의 조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빠져나온다.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은 영혼과 그 투사들이 육체의 영역에서, 그리고 육체와 관련된 모든 환경 조건으로부터 거둬들인다는 뜻이다. 정신의 도움이란 도덕적 분별력, 이성과 통찰과 같은 고차원적인 정신 기능을 의미한다. 이는 영혼에 ‘신성한 흐름’과 숭고한 것들에 대한 지식을 전달한다(Jung, 2020)[13]. 허물벗기를 통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뱀은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상징이 된다.

### 2.2.1 그리스 신화

바빌론의 대지의 신 에아는 뱀의 형상을 하였는데, 인간에게 세계질서에 관한 지식을 주었다. 그리고 인간이 젊은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죽음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뱀은 지혜의 신 아테네의 상징물이며, 훗날 논리학의 상징이 되었다. 제우스의 신탁을 잃 새의 혼들림 소리로 알려주는 도도나의 나무에 뱀이 있었고, 트로이의 패망을 예언한 카산드라는 뱀으로부터 예언의 능력을 받았다(김현식, 1992)[4].

그리스의 코린토스에는 유명한 예언자 집안이 있었는데, 멜람포스는 그 집안 최초의 예언자로 신이 아닌 사람이며, 신의 도움 없이 예언하는 힘이 있었다. 멜람포스는 어미를 잃은 새끼 뱀들을 돌보았고, 자라난 뱀이 멜람포스의 귀를 활게 되면서 동물들의 말을 알아듣고 미래를 예언하게 된다(이윤기, 2012)[8]. 카산드라와 멜람포스는 뱀으로부터 예언의 능력을 얻는다. 뱀은 인간의 의식을 확장시키고, 깨어나게 하며, 영혼의 인도자로 지혜를 가져다준다(김남경, 2020)[2].

플뤼이도스가 아르고스에 살고 있을 때 기나긴 장마로 물난리가 난적이 있었다. 플뤼이도스는 큰물살에 떠 내려가는 얼룩뱀 한 마리를 건져서 살려 주었다. 얼룩뱀은 독사였기에 목숨을 걸지 않고는 구해줄 수 없었다. 플뤼이도스가 미노스 왕국에 머물 때 왕은 플뤼이도스에게 죽은 왕자를 살려내라는 역지를 부렸고, 플뤼이도스는 왕실의 돌무덤에 간히게 된다. 돌무덤에 간힌 플뤼이도스의 뱀꼬치를 얼룩뱀이 물고 사라졌고, 플뤼이도

스는 아픔을 참으며 죽음의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 죽음을 기다리는 플뤼이도스에게 발뒤꿈치를 문 얼룩뱀이 약초를 한입 물고와 묻지르니, 순식간에 머리가 맑아지며 통증이 사라졌다. 플뤼이도스는 뱀이 남기고 간 약초로 왕자의 주검을 문질렀고, 왕자는 죽음을 털어내고 깨어났다(이윤기, 2012)[8]. 이 신화에는 힘든 고난과 인고의 시간을 통과한 뒤 지혜를 터득하는 과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플뤼이도스가 왕자를 치유하는 법을 배우기 이전에, 독사에게 자신의 발뒤꿈치를 물리게 되고, 뱀의 독이 몸에 퍼지는 고통 속에 눈을 감고 아픔을 참으며 죽음을 기다리는 대목이 있다. 플뤼이도스는 왕자를 살리는 지혜를 얻기 이전에 자신 또한 고통 속에 죽음을 경험한 뒤 치유되었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약초는 뱀으로부터 배운다. 이러한 과정은 개성화와 비교될 수 있는 것으로 뱀은 지혜로운 존재로 개성화 과정을 이해하게 한다.

### 2.2.2 기독교

구약성서 창세기 3장에는 뱀의 유혹에 의해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는 대목이 나온다. 아담과 하와는 이로 인해 벌거벗음과 부끄러움을 알게 되지만, 선과 악, 성의 창조성 등의 지성을 갖추게 된다. 금단의 열매는 깨달음의 열매로, 인간을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도록 하는 간교한 뱀은 인간을 지성으로 이끄는 지혜로운 존재이다. 이러한 뱀을 기리는 청동상은 기원전 7세기에 에제키엘이 파괴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 즉, 헤브라이인에 있어서도 뱀은 인간의 친구이자, 진리의 옹호자였다. 이것은 마치 신의 불을 훔쳐와 인간을 신과 같은 창조의 권능을 다룰 수 있도록 한 프로메테우스와 비견될 만하다(김현식, 1992)[4].

### 2.2.3 한국 신화

삼국유사 탐상편의 ‘오대산에 있는 오만 진신’에서는 문수보살이 36가지 모양으로 변하여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푸른 뱀의 모양이다(이강환 외, 2020)[5]. 문수보살은 불교에서 최고의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로 반야의 지혜를 갖추고 훌륭한 복덕을 지닌 보살이다. 이와 더불어 삼국유사 기이편을 살펴보면 뱀은 신라시조 혁거세왕의 오체를 묻는 것을 방해하는 훼방꾼으로도 나오지만, 역으로 오체를 따로 묻어야 한다고 알

려주는 존재로 등장한다(이강한 외, 2020)[5]. 이를 바탕으로 삼국시대에 뱀은 지혜의 상징으로서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에 나오는 ‘영리한 뱀’ 이야기로 1258년 위도의 ‘누런 뱀’ 이야기가 있다(곽재식, 2007)[1]. 사람처럼 말을 하고 생각이 깊어 사람에게 미래에 대해 충고를 해준다. 인어사는 ‘사람의 말을 하는 뱀’이라는 뜻으로 조선시대의 ‘대동운부군옥’에서 사용한 제목이다. ‘순오지’의 이야기에는 불교 승려가 제자를 데리고 기이한 일을 보여주고 해결하는 불교의 이야기로 유래가 중국이나 인도의 불교 문헌에 있을 수 있다(곽재식, 2007)[1].

### 2.3 뱀의 허물벗기와 변환의 상징

뱀의 상징은 천지창조의 반복으로 이해되었고, 연금술사들에게서 에덴동산의 뱀은 사악하고 간교한 신이고, 자신들의 작업을 온갖 것으로 방해하는 악마로 인식되었다. 뱀은 공격, 악마적 성격, 회방 등을 통해 작업 과정이 발전하게 하는 요소로, 문명과 의식화의 변화를 추동한다(Jung, 2016)[15].

연금술에서 막대기 위에 있는 뱀이 수은의 휘발성을 억누르고 고체화하도록 작용한다. 원을 깨는 뱀의 모습은 연금술적인 용해를 나타낸다(Cooper, 1994)[20]. 용해는 원래의 상태인 원재료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변환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첫 물질로의 환원이 없이는 변환될 수 없다. 용해를 통해 한 형태는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가 출현하게 된다. 용해는 죽음이 되며, 복원이 된다. 용해가 되는 날 어둠과 죽음이 사라지고 지혜가 다가온다(Edinger, 2015)[19].

개성화를 의미하는 내면의 정신의 합일은 신체와 연합되었던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며 이 분리는 죽음으로 경험된다(Edinger, 2015)[19]. 고통의 비애와 비탄은 연금술의 죽음작업으로 신의 현현은 신체로부터 자라나 불멸의 몸인 재탄생에 해당한다.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의 죽음은 아주 좋은 예로 감옥에 갇혀 어둠의 시간을 겪은 후 신의 현현이 일어나고, 검은 죽음의 머리는 자기로 대변되는 황금으로 변환한다(Edinger, 2015)[19]. 이는 죽음으로 대변되는 겨울잠을 자고 나온 뱀이 허물을 벗는 것을 연상시킨다.

### 2.4 뱀의 허물벗기와 재탄생과 치유의 상징

Jung은 정신의 합일을 이루기 위해 첫 단계에서 연합된 영과 혼을 신체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죽음으로 경험된다(Edinger, 2015)[19]. 즉 니그레도 상태를 지난 후 변환, 신성의 현현이 일어난다. 연금술에서 니그레도 단계에 해당하는 죽음은 ‘금욕, 참회, 혹은 육체에 가한 가혹한 고통으로 열정과 욕망을 극복함’을 뜻하는데, 죽음은 암흑, 고뇌, 사망과 연관된 가장 부정적 작업이나 매우 긍정적인 요소인 성장, 재탄생, 부활을 유도한다(Edinger, 2015)[19]. 뱀은 상당한 고통이 따르는 인고의 과정인 허물벗기를 통해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통해 다시 생명을 얻는다.

#### 2.4.1 그리스 신화

그리스 문화에서 뱀은 치유, 부활을 상징하며, 치유의 상징인 의사 히포크라테스,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휘게이아 여신, 헤르메스 신의 부수물이며, 구제자, 치유자로서의 아스클레피오스의 모습이기도 하다. 로마에서는 뱀은 구제의 신들과 연관된다(Cooper, 1994)[20]. 의술의 신인 아폴론은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아들이 있었다. 아폴론은 이 아들을 당시의 용한 의사이자 지혜로웠던 켄타우로스케이론에게 맡겨 의술을 배우게 한다. 아스클레피오스는 트라카라는 도시에 지금의 의과 대학교 겸 부속병원과 같은 곳을 세워 의술을 가르치고 환자를 치료했다. 의술이 뛰어난 아스클레피오스는 빠르게 환자를 치료해 냈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한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아스클레피오스가 죽은 자를 살려 내는데 이는 저승과 이승의 이치를 분별하지 못한 것으로 제우스의 분노를 사게 되어 제우스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이윤기, 2012)[8].

아스클레피오스는 제우스의 번개를 맞아 죽은 고린도의 왕을 살리려 치료하던 중 방 안으로 들어온 뱀 한 마리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된다. 이때 아스클레피오스가 지팡이를 휘둘러 그 뱀을 죽인다. 잠시 뒤 다른 뱀 한 마리가 약초를 물고와 죽어 있는 뱀의 입에 올리는데, 곧바로 죽었던 뱀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본 아스클레피오스는 뱀이 했던 대로 그 약초를 고린도 왕의 입에 갖다 대어 그를 살려내는데, 이후 아스클레피오스는 감사의 의미로 자신의 지팡이를 휘감은 한 마리의 뱀을 자신의 상징으로 삼았다(이태원, 2013)[9].

아스클레피오스의 의술 학교는 훗날 많은 명의를 배출하고 그중 하나가 히포크라테스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은 고대 의과 대학 및 그 부속 병원이었다. 이 신전에는 신관이 흠빛 뱀을 기른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는 독이 없는 흠빛 뱀을 신관들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사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의술의 상징인 휘장의 지팡이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이며, 뱀은 아스클레피오스의 사자로 여겨진 독이 없는 흠빛 뱀인 것이다. 오늘날까지 의술을 상징하는 휘장에 지팡이와 뱀이 그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대한의사협회 마크, 군의관의 배지, 유럽의 병원과 약국의 문양에 이르기까지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가 두루 사용되고 있다(이윤기, 2012)[8].

제우스의 아들이며 올림포스의 12주신 중 하나인 헤르메스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트릭스터로서 사자도 되고, 십자로의 신도 되고, 지하세계를 오가며 영혼을 선도하는 역할도 한다. 항상 지팡이와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있고 뱀 두 마리가 휘감겨 있는 지팡이를 들고 있다. 서로 엉킨 뱀은 형상세계 내에서 이중의 창조적 힘(선과 악의 힘)의 상징으로, 하나의 지팡이를 중심으로 서로 엉켜 있는 것은 신들의 사자 헤르메스의 상징에 해당하는 카두세우스가 된다. 이는 서로 뒤엉켜 꿈쩍 못하고 싸우고 있는 두 마리의 뱀을 헤르메스가 갈라놓기 위해 지팡이를 사용했던 것에 기인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자연적으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는 관념을 반영하는 동중요법의학의 상징으로도 사용된다(김현식, 1992)[4].

#### 2.4.2 기독교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서 뱀은 다양한 상징으로 다뤄진다. 치유의 상징으로 등장한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을 살펴보면 ‘너는 불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놓아라. 누구든지 물린 자는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사막을 건널 때 지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불 뱀을 보내 이를 벌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뱀에 물려 죽게 된다. 이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다. 모세는 구리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놓았고, 구리 뱀을 본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었다. 불 뱀의 독에 의해 쓰러져 가

던 사람들은 구리 뱀을 보고 치유를 경험한 것이다. 이 구리 뱀 사건은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하는 의미를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실 때 다시 한 번 등장한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살펴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던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인류에게 구원의 상징이듯 장대 위의 구리 뱀도 구원의 상징으로 재탄생을 보여준다.

#### 2.4.3 인도 신화

인도신화에는 대양의 뱀 아난타가 등장한다. 아난타는 ‘끝없는’이라는 뜻으로, 무한함과 영원성의 의미를 가진다. 아난타는 뱀 신 나가 왕 중 한명으로 천 개의 머리를 가지며 인간의 모습을 한 비슈누신의 침상과 차양이 되어 떠다닌다. 이 신들은 이 세상이 끝나고 모든 인간을 비롯한 나가 일족이 멸망한 뒤 다시 세상을 창조하기까지 아난타를 타고 다니며 세계의 시작과 끝에서 나타난다. 아난타는 크리슈나의 이복형인 팔라라마가 되는데, 빌라라마가 해변에 있는 나무 아래 앉아 생각에 잠기자 빌라라마의 입에서는 한 마리의 뱀이 나와 바다의 심연으로 돌아간다. 바다의 뱀이 된 아난타는 각 겁이 끝나는 시기마다 피조물들을 파괴하는 맹독의 불을 토해낸다. 한동안 화해한 신들과 악마들이 뱀을 밧줄 삼아 만다라 산을 동여매고, 바다를 휘저으며 불사의 영약인 암리타를 찾아냈다고 한다(Cotterell, 1997)[12].

#### 2.4.4 한국 신화

겨울잠을 자다 봄이 돌아오면 다시 살아나는 뱀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오는 재생능력이 있다고 믿어졌다. 뱀은 땅 속에 사는 동물로, 생명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뱀의 신성(神聖)은 불사의 존재로 인식되었다. 뱀이 허물을 벗고 성장하는 것을 것과 겨울잠을 자다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부터 죽음에서 매년 재생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제주도의 신화 차사 본풀이에는 강림이라는 인물이 염라왕으로부터 ‘여든이 된 사람은 차례로 저승에 오라’는 글귀가 기재된 적폐지를 받아 이승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온다. 강림은 적폐지를 가지고 오던 중 까마귀를 만나게 되고, 까마귀는 자신이 적폐지를 대신 전달해 주

겠다고 제안한다. 까마귀는 놀라게 되는 일로 인해 적폐지를 밑으로 떨어트리고, 밑에 있던 구렁이는 적폐지를 삼켜 아홉 번 죽어도 열 번 살아나게 된다(현용준, 2007)[11]. 염라왕은 지하 지옥에 살며 죽은 이의 영혼을 다스리는 죽은 자의 신으로 적폐지에는 저승 법에 따라 인간의 수명과 관련한 글귀가 기재되어 있다. 구렁이가 적폐지를 삼키게 되면서 수명의 제약을 뛰어 넘고 불사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뱀의 재생적 능력은 고구려의 고분벽화 사신도(四神圖)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신도 중 현무도에는 음(陰)의 기운을 가진 거북과 양(陽)의 기운을 가진 뱀이 서로 뒤엎힌 채 머리를 마주 보고 입에서 뱀어져 나온 기운이 허공에서 어우러지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는 우주적 질서의 회복을 의미하며 재생과 관련 있다. 게다가 벽화에서 보이는 두 마리의 뱀은 각기 제 꼬리를 무는 듯한 형상으로 우로보로스와도 통하며 우주의 무한성과 순환적 성질을 상징한다(김성호, 2013)[3].

무덤에 넣은 신라토우에는 죽은 목숨을 재생케 하는 힘을 지닌 존재로 생각되는 뱀이 조각되어 있다. 이 뱀은 개구리의 뒷다리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천진기, 2013)[10]. 뱀은 겨울에 죽은 듯 오랫동안 잠을 자다 봄이 되면 깨어나 활동하기에 죽음과 그로부터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며 무덤에 넣어 죽은 자의 부활을 기린다. 부착토우에서 대부분 개구리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개구리는 한번에 수백, 수천 개의 알을 낳고 겨울잠을 자기에 뱀과 유사성이 있다. 이외 개구리도 변태를 하는 동물로 물속과 땅속에서 생활이 가능하다는 특성 등으로 뱀과 같은 유사의 의미를 내포해 뱀의 상징을 강화시킨다. 뱀은 개구리 또는 두꺼비와 천적내지 상극 관계로 민간의학에서는 뱀이 두꺼비를 물면 서로의 독성이 최고로 발휘되어 약효가 더욱 좋아진다고 하였다(이강한 외, 2020)[5]. 이렇듯 개구리를 물고 있는 뱀의 조각은 재생 및 치유의 상징을 염원하며 강조한다. 뱀은 허물을 벗는 환생, 겨울잠에서 다시 깨어나는 재생(再生),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불사(不死)·영생(永生)·재생(再生)의 동물로서 죽은 사람의 영생과 관계한다(천진기, 2013)[10].

### 3. 결론

뱀의 허물벗기 상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상징이 때로는 언어를 넘어서듯(Freud, 2018), 표현되어지지 않은 뱀의 허물벗기 상징에 대한 여러 의미를 볼 수 있었다[23]. 뱀은 허물을 벗는 과정에서 목은 몸을 버리고 여러 번 새로운 몸을 갖게 된다. 고대의 사람들은 뱀의 허물벗기를 새롭게 젊어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보아 뱀을 새로운 탄생의 신비를 관장하는 존재로 인식하였다(Campbell, 2000)[21]. 죽음을 벗어나 새로운 몸을 얻는 불사의 뱀은 재탄생과 치유의 상징이 되는데 이는 변환, 지혜 등의 상징과 연결된다.

상징을 다루기에 앞서 뱀의 허물벗기를 중심으로 한 뱀의 생물학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뱀이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는 것을 통해, 새로운 비늘이라는 피부를 얻고 성장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은 인고의 과정으로 상당한 어려움과 고통이 따른다고 하였다. 앞서 인간은 전체로서 살 것을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마음의 심층에는 언제나 전체가 되게끔 하는 원동력이 움직이지만, 자기와의 일치는 고통을 수반하는 하나의 창조 과정으로 결코 편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이부영, 2017)[6]. 고난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기나긴 성인의례를 겪는 것으로 인격의 발전을 이끌며 개성화로 통한다(이부영, 2011)[7]. 즉, 뱀의 허물벗기는 심리적 변환의 과정을 통한 개성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상징으로서 뱀의 치유능력과 재탄생에 대해 치유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신비로, 심적 대극의 문제를 자극하는 죽음의 위기에서 치유를 통해 대극을 융합시킨다. 치유를 위한 치료약 및 생명을 되살리는 것은 험난한 과정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데 이는 자기실현을 통한 의식의 확대과정으로 의식의 범주를 넘어 '자기'가 작용한다(이부영, 2011)[7]. 이러한 자기의 실현은 비합리적인 대극을 합일하고 최고의 진리가 터득하여 부처와 그리스도, 노현자 등의 지혜로운 존재와 같은 지혜를 얻으며 창조적인 인격의 변환을 초래한다. 이는 연금술에서 죽음의 과정을 지나 변환과 재탄생의 과정을 맞이하는 것과 상응하며, 연금술의 최종 산물인 지혜 또한 허물벗기의 산물이 되었다. '지혜의 상징으로서의 뱀'과 '변환의 상징 뱀'에서 이와 같은 뱀의 상징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뱀의 허물벗기의 과정이 지혜, 변환, 재탄생과 치유의 상징

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References

- [1] 광재식, “한국 괴물 백과”, 서울: 위크롭 프레스, 2007.
- [2] 김남경, “본능적 활력의 복원과 변환을 자극하는 뱀의 상징성”,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Vol 11, No 1, pp. 191~230, 2020.
- [3] 김성호, “대순회보”, 140호, 2013. 1.
- [4] 김현식, “한국문화상징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92.
- [5] 이강한·우정연·이상해·이창일·김성혜, “한국의 동물 상징”, 경기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0.
- [6] 이부영,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2017.
- [7] 이부영, “한국민담의 심층분석-분석심리학적 접근 2 판”, 서울: 집문당, 2011.
- [8] 이윤기, “그리스로마신화1”, 서울: 웅진씽크빅, 2012
- [9] 이태원, “선과 색의 어울림 뱀”, 서울: 씨밀레 북스, 2013.
- [10] 천진기, “국회보”, 554호, p.134, 2013. 1.
- [11]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서울: 집문당, 2007.
- [12] A. Cotterell, “그림으로 보는 세계신화사전”, 편집부 옮김, 서울: 까치글방, 1997.
- [13] C. G. Jung, “융합의 신비”, 김세영, 정명진 옮김, 서울: 부클북스, 2020.
- [14] C. G. Jung, “인간과 상징”, 이부영 옮김, 서울: 집문당, 2016.
- [15] C. G. Jung, “아이온”, 김세영, 정명진 옮김, 서울: 부클북스, 2016.
- [16] C. G. Jung,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 서울: 솔 출판사, 2007.
- [17] C. G. Jung, “원형과 무의식”,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 서울: 솔 출판사, 2002.
- [18] C. S. Hall & V. J. Nordby, “융 심리학 입문”, 김형섭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2004.
- [19] E. F. Edinger, “연금술의 상징과 심리치료”, 김진숙 옮김, 서울: 돈화문출판사, 2015.
- [20] J. C. Cooper,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이윤기 옮김, 서울: 까치글방, 1994.
- [21] J. Campbell, “신의 가면Ⅲ 서양신화”, 서울: 까치글방, 2000.
- [22] R. A. Johnson, “내면작업”, 고혜경, 이정규 옮김, 서울: 도서출판 동연, 2021.
- [23] S. Freud, “끝이 있는 분석과 끝이 없는 분석”, 임진수 옮김, 경기도: 열린책들, 2018.
- [24] S. Freud, “꿈의 해석”, 김인수 옮김, 경기도: 열린책들, 2017.

### 나 주 희 (Na, Ju-Hee)



- 2023년 2월 : 한일장신대학교 미술치료학과(미술치료학 박사수료)
- 2020년 2월 : 한일장신대학교 미술심리치료학과(미술심리치료학 석사)
- 관심분야 : 분석심리, 미술치료
- E-Mail : kooljh@naver.com

### 김 동 태 (Kim, Dong-Tae)



- 2010년 8월 : 백석대학교 상담학과(상담학 박사)
- 2003년 8월 : 영남대학교 심리학과(심리학 석사)
- 2014년 8월~현재 :한일장신대학교 겸임교수
- 관심분야 : 정신분석, 이상심리, 대상관계
- E-Mail : dongtae1@hanmail.net